

5 장 원죄가 아니라 원복 (ORIGINAL BLESSING, NOT ORIGINAL SIN)

I. 주제 (Thesis)

인간은 축복받은 존재이지 죄를 타고난 존재들이 아니다.

II. 문제점 (Problems)

- a. 원죄는 해방시키는 신학이 아니라 올라미를 씌우는 신학이다. (pg 164)
 - i. 자신들이 범하지 않은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생각은 비윤리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(pg.154)
 - ii.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력으로 원죄 개념이 교리로 발전되었다.
- b. 원죄 교리로 인한 교회의 부패
 - i. 첫 아담의 죄로 인한 원죄 개념의 해결자, 예수 (둘째 아담)의 대속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교리로 교회만이 구원의 독점권을 가진다.
- c. 이원론적 개념으로 인해, 변화로서의 신앙이 아니라, 값싼 거래로서의 신앙이 되었다.

III. 논점 (Argumentation)

- a.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으로, 우리는 아담의 죄에 갇혀,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했으며,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원죄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는 교리를 갖게 되었다.
 - i. 야훼 문서 기자 (기원전 9 세기)는 인간의 이기적이며 반역적인 행동을 은유와 '원인론'적 측면에서 서술했는데,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문자적으로 적용하였다(pg. 152).
 - ii. 새로운 아담,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만 고쳐진다고 하는 주장은 피조 세계가 악하지만 선택적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. (pg. 153)
- b. 원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병들었고 그 치유의 독점권을 교회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. (pg. 155)
 - i. 구원의 유일한 창구가 된 교회는 막강한 power 를 가졌고 심지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기들은 지옥의 변방 (limbo)에 가 있다고 하였다. 지옥 변방 개념이 1992 년 교황의 칙령으로 폐기되었다. (pg. 148)
 - ii. 목사들이 평신도들은 신화나, 원인론과 같은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것으로 여기고 가르치지 않는것은 성경 이야기의 풍요로움과 지혜를 빼앗아버리는 것이다.(pg. 154)

- c. 원죄와 예수를 통한 배타적인 구원은 거짓된 이분법이다 (pg. 161)
 - i.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여 단순하게 교회가 교리로서 신비한 것들을 정리해 주길 원한다 (pg. 158)
 - ii. 교회의 언어는 우리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 죄의식과 수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. (pg. 160)
 - iii. 구원은 원래 우리들 속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뜻했고, 이생에서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지, 죽은 다음 종착지의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니다.(pg. 162)

- d. 우리는 가치있는 존재이다.
 - i.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싸우도록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높은 의식과 숭고한 사랑을 받은 축복받은 존재들이다. (pg.165)
 - ii.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또 피조 세계가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기위해 애를 쓰는것을 멈출것이다. 또한 이것이 참된 자유이다.(pg. 167)
 - iii. 창조 중심의 영성은 지성과 과학의 위치를 희생시키지 않은채, 우리의 종교적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. (pg. 169)
 - iv. 기독교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: 예수에 관한 믿음이나 예배하는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. (pg. 171) 그리하여, 본래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한다.(pg. 172)

IV. 평가 (Critique)

- a. 구원의 개념이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이나,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, 우리에게 전도(도를 전한다)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? 또는 필요한가?

- b. 우리는 원죄가 주는 죄의식과 무능함에서 벗어나서 외부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, 원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?

- c. 저자는 원죄 개념의 설명에 치중하여, 원복에 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한것 같다. Original Blessing 을 이미 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,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, 어떻게 살 것인가? 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.